

# 항공업계, 3분기 연휴효과 '톡톡' 中 무비자 등 여행수요 대응 박차

대한항공·제주항공 등 호실적 기록 中 단기 비자 면제... 신규취항 속도 징검다리 연휴 등 여행수요 증가 전망

국내 항공업계가 올해 3분기 황금연휴와 유가·환율 안정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2분기 고환율·고유가 등의 악재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항공업계가 3분기 기분 좋은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 말형인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매출액 4조2408억원, 영업이익은 61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19% 증가한 수치다. 고환율·고유가 등 외부 악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2분기와 달리 항공업계 성수기인 3분기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으로 여객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록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3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2조 6173억원, 화물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조 1198억원을 기록했다. 전통적인 항공화물 비수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발 전자상거래 지속 성장 수요를 견인하며 호실적 달성했다.

4분기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하반기부터 중국 노선 확장에 나선 대한항공은 다음 달 신규 취항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이달 중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LCC업계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5일 지난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460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올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395억원을, 순이익은 59% 증가한 431억원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중단거리노선에서의 견고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성수기 여행 수요를 흡수한 것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기준 제주항공의 3분기 수송객 수는 332만4143명, 점유율은 14.2%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 1위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이 3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26.2% 늘어난 4115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21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에어의 경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17억원, 4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와 최대 9일의 황금연휴로 불린 추석 연휴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며 "4분기도 징검다리 연휴 등의 영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김동관 부회장, 사우디 장관 회동 방위·경제분야 등 협력방안 모색

한화그룹 사우디 협력관계 고도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4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2030'의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화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고, 중동지역 안보 수요에도 공동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태양광 사업은 물론 방산 사업까지 중동의 지정학적위기에 대응하고 현지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 형성에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화는 지난 4일 김 부회장과 압둘라 장관이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의 경제 사절단의 일원으로 압둘라 장관을 처음 만난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왔다.

이날 만남에서 한화는 방산 분야 현 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방위부 측에 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4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화 및 공동 개발, MRO(유지·보수·정비)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압둘라 장관은 "사우디와 한화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길 희망한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우디를 넘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함께 방산·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한화의 협력은 2024년 사우디-한국간 공동 채택된 경제 및 안보협력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우디 국가전략과 중동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국내·외 3만명 구름인파... AI '교류의 장' 도약

## SK 'AI 서밋 2024' 폐막

HBM, 텔코LLM 등 이목집중 "미래 AI 시대 가속하는데 기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끈 'SK AI 서밋 2024'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와 산·학·연 주요 인사들의 참여 속에 막을 내렸다.

SK그룹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 국내·외 AI 전문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합산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최된 AI 심포지엄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는 이번 서밋을 국제 행사로 격상해 정부·민간·학계의 AI 전문가들이 미래 AI 시대의 공존법과 AI 생태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행사 첫날 최태원 SK 회장은 약 50분간 오프닝 세션을 주재하며 서밋을 이끌었다. 최 회장은 AI 미래를 가속



'SK AI 서밋(SUMMIT)' 전시장 전경. /SK

하기 위해 SK의 AI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AI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MS, 엔비디아, TSMC 등 SK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빅테크 CEO들과 AI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대담 형식으로 연설을 진행했다.

국내·외 저명한 연사 30여명이 참석한 메인 세션 외에도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의 발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SK는 국내 AI 유망 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에 4개의 신

규기업(사운더블헬스·테크에이스·바이파이브·노타)를 포함해 총 19개사가 결집해 국내 AI 기술력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글로벌 진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SK는 전시관에서 AI 인프라, AI 칩, AI 플랫폼, AI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이 적용된 50여개의 아이템을 선보였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액침 냉각 기술을 포함한 AIDC 솔루션, 텔코 LLM 등을 관람하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MS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전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구글 클라우드의 AI 포토 카드 제작을 체험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향후 SK AI 서밋은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해법을 제시하는 AI 시대를 여는 협력의 장으로서 미래 AI 시대를 가속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 에코프로에이치엔, 초평사업장 준공

다각화 기틀이 될 초평사업장을 준공했다. 6일 충북 진천군 초평 은암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초평사업장 준공식에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인 에코프로에이치엔이 이차전지 소재 및 반도체 소재로의 사업 다각화 기틀이 될 초평사업장을 준공했다. 6일 충북 진천군 초평 은암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초평사업장 준공식에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

# LG전자, 차량용 AR 선행특허 '세종대왕상'

## 2024 특허기술상 시상식

AR 기반 모빌리티 SW 사업 확대

앞으로 종종 헛갈리는 내비게이션 안내도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LG 전자 차량용 AR 기술로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속 안내선만 따라가면 헛갈리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

LG전자가 6일 특허청 주관으로 열린 2024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차량용 AR(증강현실) 선행 특허'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특허기술상은 10년 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매년 심사를 거쳐 국가산업 기술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특허를 선정해 시상한다. LG전자의 '차량용 AR 선행 특허'는 2022년 국내와 해외에 동시 출원됐으며, AR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특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정보 및 경로 안내 등을 AR 기반의 3D 그래픽으로 표현한 AR UX(사용자경험, User Experience) 기술이다. AR 그래픽이 자유롭게 분리, 변형, 결합해 기존 방식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1/2 방향 및 속도, 오르막/내리막, 경로 탐색 상태, 차선 변경 등 다양한 UX 표현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이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R 솔루션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수익화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해 선행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LIG넥스원-밥콕, MRO 시장 공략 맞손

(유지·보수·정비)

공급망 구축 등 협력활동 추진

LIG넥스원이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공략을 위해 밥콕 인터내셔널 그룹(이하 밥콕)과 손을잡았다.

LIG넥스원은 5일(현지 시간) 프랑스로부터 개최 중인 유로나발 2024 전시회 현장에서 밥콕과 MRO 개발 및

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식 LIG넥스원 PGM사업부본부장과 마크 골드삭 밥콕 해외사업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LIG넥스원은 밥콕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MRO 시장 진출 및 확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MRO 분야 협업 추진 ▲Training Center 운영 노하우 교류 ▲신규 무기체계 개발·양산 기술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식 LIG넥스원 PGM사업부본부장은 "앞으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가능한 MRO 역량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협약이 해외 시장에서 LIG넥스원의 입지를 한층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